

## 우수 인력과 원전기술 확산을 위한 원자력생태계 지원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에너지전환정책이 시행된 이후 원자력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면서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오던 중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설계, 시공,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작, O&M으로 구성되며, 이 중 운영과 연구공공 분야를 제외한 공급산업체 매출은 지난 5년간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종사 인력은 약 3만 7천 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부의 중기재정으로 시행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은 원자력산업과 인력 생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력전환 및 재취업 지원, 원자력전공자의 인턴십 취업 지원과 원전기업의 사

업다각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 내용은 대부분 2018년 6월 21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년간 약 261억 원으로 처음 3년 동안은 58억 원, 4차 년도에 43억 원, 5차 년도에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고 이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관 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첫 번째 사업인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 지원은 원자력 분야 기업에 종사하던 인력에 대해 원자력산업협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권역별 대학,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 품질, 해체, 방사선 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취업 지원은 원자력 분야 고숙련 퇴직인력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건비의 90%를 보조해 줌으로써,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급여 250만 원의 90%를 보조하며 기업은 10%만



중소협력기업 간담회에서 원전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자력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로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을 통해 원자력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십 인건비를 80% 수준으로 4개월간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대학생들의 취업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 시에는 월 인건비의 40% 수준을 6개월간 지원하여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인건비 기준은 학사 월 185만원, 석사 월 200만원, 박사 월 300만원이다.

▶ 끝으로 원전기업 사업다각화 지원이다. 원자력 분야에 의존하거나 대부분 원전관련 매출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그 특성상 독자적으로 사업 전환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내부의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정보와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전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역량을 가진 컨설팅 기업의 자문을 통해 실제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컨설팅 건당 1,000만 원 수준에서 80%를 지원토록 하며, 아울러 기존의 기술력을 가지고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선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공동장비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설비 및 장비개선 지원, 시설 및 장비 임차료 지원, 제품화와 양산화 비용을 약 1억 원의 8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원전기업 사업다각화 지원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세부사업명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지원 기업 수
① 사업다각화 컨설팅	최대 1,000만	80%	20%	60개사
② 공동장비 사용	최대 700만	80%	20%	16개사
③ 설비 및 장비 개선	최대 3,100만	80%	20%	16개사
④ 시설 및 장비 임차	최대 1,000만	80%	20%	16개사
⑤ 제품화 및 양산화	최대 7,500만	80%	20%	16개사

그 밖에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교류회와 미래포럼을 운영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과 미래 유망 분야 진출을 위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체계는 산업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며, 원자력산업협회는 직접적인 사업의 운영을 맡아 성과를 거두는데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많은 원전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에 호응해 주기를 바라며, 원자력생태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MF**